

# 다문화 가정 대상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성과

김 선 정  
(계명대학교)

## 1. 머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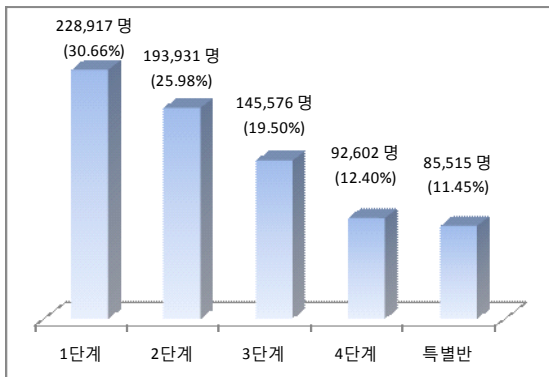
우리나라가 매우 빠른 속도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여성 결혼 이민자의 수가 2012년 3월 현재 14만 5천 6백 명을 넘었다. 이러한 이유로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교육하고 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의 학생 수가 크게 늘고 있다. 2011년 12월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의 학생 수는 총 38,678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0.55%에 달한다. 수적인 증가도 눈여겨 볼 일이지만 지방 군 단위 학교의 경우에는 다문화 가정 학생의 수 대 일반 가정 학생의 수의 비율이 도시 지역에 비해 훨씬 높고, 심지어는 다문화 가정 학생의 수가 일반 가정 학생의 수보다 더 많은 경우도 있다.

여성 결혼 이민자와 다문화 가정의 아동은 수적으로 보나 우리 사회에서 이들이 지니고 있는 의미로 보나 한국어 교육의 중요한 대상임에 틀림이 없다. 이 글에서는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의 현황에 관해 간략히 살펴보고, 이들을 위해 그동안 이루어놓은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성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2. 다문화 가정 대상 한국어 교육의 현황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에서는 여성 결혼 이민자와 다문화 가정 아동을 위한 갖가지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여성가족부에서는 전국에 200여 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교육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한국어 교육의 목적은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을 통하여 결혼 이민자들이 한국 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안정적인 초기 정착을 지원하여 다문화 가정 내에서의 의사소통을 증진함으로써 가족 내 갈등 및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있다. 또한 수준별 한국어 교육을 통하여 결혼 이민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한국 사회에의 적응을 돕고, 사회 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데 있다.

다문화 가정 대상 한국어 교육은 1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된 정규반과 한국어능력시험(TOPIK) 대비반과 같은 특별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래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2011년 통계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은 수강생은 1단계가 31%, 2단계가 26%, 3단계가 20%, 4단계가 12%이고, 특별반은 11%이다. 이로써 여성 결혼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은 아직 기초 단계인 초급에 속한 수강생이 전체 수강생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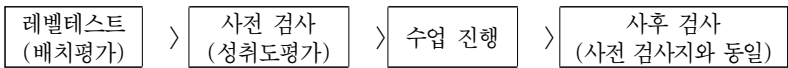
〈그림 1〉 한국어 교육 단계별 이용 연인원

다문화 가정 대상 한국어 교육에서는 1~4 단계는 국립국어원에서 발행한 『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1~6을 사용하고, 특별반에서는 센터 자체 교재를 활용한다. 1~4급의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서는 동요나 동화책, 낱말카드, 기타 보조교재 등과 같은 자체 부교재를 활용하기도 한다.

강사는 한국어교원 3급 이상 자격 소지자를 우선으로 하고, 국어기본법에 의한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이수자(필수 이수 시간 120시간) 중 정부 기관 및 시민 단체 등에서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500 시간 이상 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도 가능하다. 또한 초등학교 정교사(2) 자격 이상을 소지하고, 초등학교 교사 2년 이상 경력 확인이 가능한 자로서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이수한 자도 가능하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은 집합 교육과 방문 교육으로 나뉘는데 2011년 한 해 동안 총 1,787명(실인원)의 한국어 교육 지도사가 다문화 가정을 방문하여 기초단계의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들 중 본인이 결혼 이민자인 경우는 58명(3.2%)에 이른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의 절차에 관해 간단히 살펴보자. 다문화 가정 대상 한국어 교사는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먼저 배치평가지를 활용하여 레벨테스트(1~4급)를 실시하여 학습자의 출발 등급을 결정한다. 그런 다음 레벨테스트의 결과에 따라 사전 검사를 실시한 후 정해진 기간 동안 예정된 수업을 진행한다. 교육이 끝난 후에는 사전 검사지와 동일한 검사지를 활용하여 사후 검사를 실시한 후에 교육 효과를 측정한다. 레벨테스트 및 사전·사후 검사 결과는 모두 DB화되어 교육생 및 한국어 교사 관리에 활용된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한국어 수업 절차

2011년 한 해 동안 가정 방문 교육의 형태로 한국어 교육을 받은 가정은 총 10,864에 이른다. 이들의 대부분은 결혼 이민자로 9,830명(90.48%)이고, 다음이 일반 다문화 가정 아동으로 783명(7.21%), 그 다음이 중도 입국 아동

으로 251명(2.31%)이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1〉 2011년 한국어 교육 수혜자 수

	전체		대상자별		
	대상 가정 (중단 가정 포함)	중단 가정	결혼 이민자	자녀	중도입국 자녀
총계 (가정)	10,864	1,892	9,830	783	251

방문 한국어 교육을 받은 가정의 여성 결혼 이민자의 출신국을 살펴보면,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베트남이 53.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중국 16.0%, 필리핀 11.3%, 캄보디아 8.9% 순이다.<sup>19)</sup>

〈표 2〉 한국어 교육 서비스 지원 대상 가정 결혼 이민자 출신국 현황

	필리핀	베트남	중국	일본	태국	몽골	캄보디아	러시아	네팔	인도네시아	우즈베크	카자흐스탄	미얀마	기타
총계 (명)	1,228	5,771	1,735	315	140	139	962	33	87	22	168	13	12	217

보통 방문 한국어 교육은 한 번 방문 시 2시간(120분)의 교육을 실시하는데 주로 낮(12시~18시: 61.7%; 9~12시: 34.8%)에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주말보다는 주중(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에 많이 이루어졌는데 금요일은 다른 요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고, 주말에는 1.9%로 가장 낮은 분포

19) 행정안전부의 2012년 지방 자치 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조사(2012)에 따르면, 혼인귀화자를 포함한 결혼 이민자(남성 포함) 중 중국 국적을 가진 결혼 이민자가 57.3%(한국계 중국인 29.8%)를 차지하였고 다음이 베트남 19.8%, 필리핀 5.7%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어 교육을 받은 가정의 출신국 현황과 차이가 있는데, 한국계 중국인의 대다수가 한국어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를 보였다.

〈표3〉 한국어 교육서비스 서비스 제공 요일

	월	화	수	목	금	기타
총계 (가정)	4,586	4,687	4,465	4,732	2,416	403

다문화 가정 대상 한국어 교육은 『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를 주교재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는 통합 교육을 지향한다. 하지만 제공된 교육 내용을 영역별로 구분해 보면 어휘 36.7%(365,638건), 문법 31.8%(316,857건), 화용 24.0%(239,367건), 문화 7.5%(75,147건) 영역 순이다.

이뿐만 아니라 법무부에서는 여성 결혼 이민자와 다문화 가정 아동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잘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적 취득 등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 통합 프로그램(Korea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 KIIP)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2년 현재 중앙 거점 기관을 포함하여 47개의 사회 통합 프로그램 거점 운영 기관과 222개의 일반 사회 통합 프로그램 운영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어 과정과 한국 사회 이해 과정으로 나뉘는데 한국어 과정의 경우 사전 평가를 통해 한국어 능력에 따라 단계 및 이수 시간을 배정한다. 결혼 이민자의 경우에는 0단계~2단계(최대 215시간~면제)로 나뉘고, 일반 이민자의 경우에는 0단계~4단계(최대 415시간~면제)로 나뉜다. 한국 사회 이해 과정은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는 물론 법과 생활, 생활법률 등 일반 생활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든 참가자가 5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 과정을 모두 마칠 경우에는 귀화 필기 시험 및 면접 심사를 면제해 주거나 국적 취득 심사 대기 기간을 단축해 주기도 하고, 비자 취득이나 변경 시 혜택을 부여하기도 한다. 한국어 강사의 자격 기준은 여성가족부 프로그램과 동일하다.<sup>20)</sup>

교재의 경우에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위한 한국어 기초』(법무부, 국립국

어원, 경희대학교, 2010)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위한 한국어 초급(1, 2)』 (법무부, 국립국어원, 경희대학교, 2010),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위한 한국어 중급(1, 2)』 (법무부, 국립국어원, 한국외국어대학교, 2010)를 사용한다.

그러나 정부와 우리 사회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성 결혼 이민자와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한국어 수준은 그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학령기에 있는 다문화 가정의 아동이나 중도 입국 다문화 가정 아동의 경우에는 한국어 수준을 향상시키는 일이 더욱 시급하다. 이들은 기본적인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여 일상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지만 학교에서 한국어로 진행되는 교과를 따라갈 때도 많은 부담이 있다(김선정, 2010). 이들의 부족한 한국어는 곧 학습 능력 저하 및 정서적 불안, 사회에 대한 불만, 사회 부적응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다문화 가정 학생이 다수 재학하고 있는 학교를 다문화 교육 거점학교로 지정(2011년 80개교)하여, 학생의 한국어 교육과 교과 학습 지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 학생 전담교사를 지정하고, 교대 및 교육청 등과 연계하여 다문화 가정 학생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방학 중에는 집중 캠프(15~60시간)를 통해 기초 학습 및 특기 적성, 문화 체험 활동 등을 진행한다. 또한 글로벌 브리지(Global Bridge) 사업을 통해 부모의 출신국 이해 및 리더십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이들을 글로벌 인재로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교사의 다문화 교육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원 양성의 단계에서부터 다문화 이해를 위한 강좌를 개설·운영하기도 하고, 다문화 가정 학부모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한글정보화 교육 등 가족 단위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2012년 3월에는 학교 차원에서 다문화 친화적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2013년부터 한국어(KSL) 교육 과정을 도입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문화 학생을 위한 교육 선진

- 20) 한국 사회 이해 과정의 강사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기관에서 다문화 사회 전문가 양성 과정을 이수하고 다문화 사회 전문가 2급 또는 1급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한다. 또는 법무부장관과 협의 또는 양해각서 체결을 거쳐 개설된 이민 다문화 관련 대학(원)의 정규 과정에서 일정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다문화 사회 전문가 2급의 자격을 취득한 자도 가능하다.

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국립국어원에서는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KSL 초·중·고등 교재 개발 사업을 착수하였고, 국립국제교육원에서는 이들을 위한 한국어 진단 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있다.

### 3. 다문화 가정 대상 한국어 교육의 성과

한국 사회의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은 여성 결혼 이민자와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한국어 교육을 책임져야 하는 한국어 교육계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 여성 결혼 이민자는 물론 그 자녀까지 한국어 교육의 주요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한국어 교육계의 변화는 특수 목적 한국어 교육에 관심을 갖는 중요하게계가 되었고, 한국어 교육이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활성화되는 출발점이 되기도 하였다.

이 장에서는 다문화 가정 대상 한국어 교육의 성과에 대해 알아본다. 이때 교육과정이나 교수요목, 교재 등 교육 기반에 관한 성과는 다문화 가정 자녀에 관한 것은 이제 출발의 단계이므로 여성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성과를 주로 다루고자 한다.

#### 1) 다문화 가정 대상 한국어 교육 기반

##### (1) 다문화 가정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

여성 결혼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은 정부의 지원으로 학문 목적 학습자나 재외동포용 한국어 교육과정보다도 먼저 설계되었다. 이는 여성 결혼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이 정부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2009년에 국어원에서 발표한 여성 결혼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허용 외, 2009)<sup>21)</sup>. 여성 결혼 이민자 대상

21) 국립국어원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김종섭 외(2010)에서도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을 설계하며 여성 결혼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도 다루었다. 하지만 이 교육과정은 범용이다 보니 앞서 이루어진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한국어 교육과정은 언어와 문화의 통합을 전제로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 교육을 연계하는 방안으로 설계되었다. 또한 여성 결혼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은 여성 결혼 이민자들과 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한국어 교사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담당자들을 상대로 요구 조사를 실시하고 당면해 있는 상황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첫째, 여성 결혼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의 목표는 일상생활, 사회생활에서의 의사소통 및 사회 적응, 자녀 교육과 직장 생활을 위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 학습에 둔다. 이는 여성 결혼 이민자들이 한국어를 학습하는 가장 큰 이유가 한국 생활과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서이며, 그 외에도 자녀 교육을 위해서, 가족 간의 대화를 위해서, 직장 생활을 위해서이기 때문이다.

둘째, 현실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교육 기간이나 교육 시간 등을 설정한다. 따라서 한국어 수업을 주 2회~3회로 하고, 1회 수업 시간을 2시간 정도로 한다. 여성 결혼 이민자들은 일반 어학 연수생이나 유학생들과는 달리 한국어 학습에 전념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성 결혼 이민자들이 희망한 한국어 학습 시간은 주 3회 정도이며, 1회에 3시간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여성 결혼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은 구어 교육과 문어 교육을 균형 있게 추구하고, 문법이나 어휘 등 언어 요소에 대한 내용도 체계적으로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여성 결혼 이민자들은 말하기에 대한 요구가 높고, 읽고 쓰거나 문법에 대한 요구는 낮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요구 조사 결과로 보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어휘, 문법, 발음을 균형 있게 학습하고자 하는 요구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신문 기사나 뉴스 등을 이해하거나 사회 전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려는 요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넷째, 교육 자료의 내용은 여성 결혼 이민자들이 자주 접하는 장소, 주제,

---

교육과정'보다 여성 결혼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덜 세밀화 되고, 덜 전문화 된 점이 있어 이 글에서는 여성 결혼 이민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한국어 교육과정을 소개한다.

상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설계함으로써 학습 동기를 높이고, 학습 내용을 실생활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여성 결혼 이민자들은 생활 속에서 한국어를 접할 기회가 많으며 일반 어학 연수생이나 유학생들에 비해 오랜 기간에 걸쳐 한 급을 마치게 된다. 따라서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어휘나 문법 등이 많으며, 발화 기회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숙달도 등급을 설정한다.

여섯째, 생활 속에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Korean as a second language)’라는 점을 고려하여, 어휘 학습량을 늘리고 실생활과 직결된 실용적인 내용으로 구성한다.

일곱째, 문화 교육은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우선으로 다루되, 문화 교육이 언어 교육과 연관될수록 효과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또한 단순히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국의 문화와의 차이점을 파악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둔다. 여성 결혼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목표와 교육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여성 결혼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의 목표

여성 결혼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요구 조사를 분석한 결과로 볼 때, 여성 결혼 이민자들은 한국어 학습을 통해 한국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요구를 지녔다. 또한 일부 여성 결혼 이민자는 직장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한국어 구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 결혼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일상생활에 필요한 한국어를 익혀 가족, 이웃과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한다.
- 식당, 우체국, 병원 등 공공장소에서 한국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 하며, 공공장소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 자녀 교육과 관련된 한국어 자료를 이해하고, 한국어로 자녀의 학습을 도울 수 있으며, 교사와 상담 등이 가능하도록 한다.
-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한국어로 된 법조항, 규칙, 계약서 등을 이해하고 자신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 필요 시 기본적인 직장생활이 가능하고, 자신과 관련된 익숙한 업무를 한국어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등급 설정

여성 결혼 이민자들의 한국어 학습 목표가 다양한 점을 감안하여 한국어 숙달도 등급을 초급, 중급, 고급으로 세분화하였다. 여성 결혼 이민자들의 한국어 학습 시간이 최대 주 6시간 정도에 그친다는 점으로 본다면 초급에서 고급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6개 이상의 등급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여성 결혼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에서는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한국어 등급 체계에 따라 초급 1, 2, 중급 1, 2, 고급 1, 2로 총 6등급을 설정하되, 각 등급의 수업 시간을 100시간으로 구성하여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등급별 숙달도와는 차별되게 구성하였다. 이는 한 학기의 수업 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제한하려는 의도이다. 그리고 6등급 중에서 초급과 중급에 해당하는 1급에서 4급까지를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필수과정으로 정하고 5급과 6급은 심화과정 또는 특별과정으로 설정했다. 등급 설정과 교육 시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등급 설정 및 수업 시간

등급	과정명	수업 시간	비고
1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1	100시간	자모 학습 기간: 2주(12시간 별도) 필수과정
2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2	100시간	필수과정
3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3	100시간	필수과정
4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4	100시간	필수과정
5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5	100시간	심화/특별과정
6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6	100시간	심화/특별과정

③ 교수요목

여성 결혼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의 일차적인 목표를 의사소통 중심 (communicative approach)의 교수법을 따라 일상생활,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두었다면 교수요목은 ‘상황(situation)’, ‘기능(function)’ 또는 ‘과제(task)’를 강조하여 설계하였다. 학습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초급 교수요목은 상황(주제) 중심의 혼합 교수요목으로 설계하되, 문법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자 하였다. 즉, 문법을 체계적으로 배열하고 아울러 충분한 문법 연습을 유도하고자 한 것이다. 중급 교수요목은 상황(주제) 중심의 혼합 교수요목으로 설계하되, 화행 기능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미 일정한 수준의 문법 능력을 갖춘 단계이므로 화행 기능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문법의 ‘사용(usage)’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한 단원에서 두세 개의 화행 기능을 다루었는데, 중요한 화행 기능은 3급~4급에 걸쳐 심화 학습이 가능하도록 나선형으로 배열하였다.

④ 여성 결혼 이민자 대상 한국 문화 교육과정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여성 결혼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은 한국어 교육과정에 한국 문화 교육과정을 통합하여 설계함으로써 학습 대상자의 요구와 교육적 필요성이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성 결혼 이민자 대상 한국 문화 교육과정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한국어의 문화적 표현을 이해하고, 이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한국의 일상생활 문화와 성취 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히 행동하도록 한다.
- 상호 존중, 상호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상호주의적 관점에서 모국 문화와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관점을 표현하고,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한국에서의 일상생활, 사회생활에 적응하고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여성 결혼 이민자 대상 한국 문화 교육과정은 한국어 교육과정에서 설정한

6등급 단계에 맞추어 6등급으로 나누고 이에 따라 교육용 문화 항목을 선정하였다. 여성 결혼 이민자 대상 한국 문화 교육과정에서 문화 교육 내용은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것을 우선적으로 다루되, 언어 교육과 연관될수록 효과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어 교육과정에 제시된 주제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항목을 선정하였다. 문화 관련 정보는 사진이나 그림 등의 시각 자료 또는 번역문 등을 통해 전달하게 되므로 한국어 숙달도는 깊이 고려하지 않았다.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 문화 교육의 목적은 한국 사회에의 성공적인 적응에 있으므로 현대 한국 사회의 이해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현대 문화를 중점적으로 제시하되 필요한 경우 전통을 기반으로 하는 현대 일상 문화를 함께 제시하였다. 특히, 기혼 여성이라는 학습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가정생활, 자녀 양육에 관련된 문화 요소를 적극적으로 포함하였다. 성취 문화 중 순수한 전통 문화적 요소는 직업 목적이나 복잡한 사회생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5~6급 심화과정에 포함하였다.

## (2) 다문화 가정 대상 한국어 교육 자료

여성 결혼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이 실시된 이래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 등에서는 이들을 위해 여러 종의 한국어 교재를 개발하였다.<sup>22)</sup> 그러나 2009년 국립국어원의 지원으로 개발한 『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가 개발된 후로는 거의 모든 곳에서 이 교재를 활용하여 여성 결혼 이민자 대상

22) 여성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주요 한국어 교재로는 2005년에 여성가족부에서 발행한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초급), 2006년에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발간한 여성 결혼 이민자와 외국인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재 『관심·사랑·화합으로 하나가 된 우리』(초급, 중급, 고급)와 2007년 여성가족부와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교재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첫걸음』,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중급), 2007년 농림부에서 출간한 한국어 초급 교재 『우리 엄마의 한국어(My Mom's Korean Language)』(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판) 등 5종 10책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교재들이 여성 결혼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데 부족하다는 판단과 이들 대상 한국어 교육의 표준화를 위해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맞춤형의 교재인 『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를 개발하게 된다.

한국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다가 2010년 법무부에서 사회 통합 차원에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면서 이들을 위한 한국어 교재인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위한 한국어 기초』(법무부, 국립국어원, 경희대학교, 2010)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위한 한국어 초급(1, 2)』(법무부, 국립국어원, 경희대학교, 2010),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위한 한국어 중급(1, 2)』(법무부, 국립국어원, 한국외국어대학교, 2010)를 개발하여 법무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한국어 교육에서는 이 교재를 사용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개발된 데다가 사용자가 가장 많고, 또한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을 위해 설계된 한국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개발된 교재인 『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를 간단히 소개한다.

『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는 여성 결혼 이민자가 한국어 학습을 통해 기초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였다. 이 교재에는 주인공 수준의 가족과 세 명의 여성 결혼 이민자, 이웃이 주요 인물로 등장하며,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주제와 상황이 펼쳐진다. 총 1권부터 6권까지가 개발되었는데 1권부터 4권까지는 출판이 완료되었고, 5권과 6권은 개발이 완료되어 출판 중에 있다. 1권과 2권에서는 여성 결혼 이민자들이 가족이나 이웃과 더불어 살며 자연스럽게 습득한 한국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문법에 대한 비중을 높였다. 즉, 문법 항목을 체계적으로 배열하고 아울러 충분한 연습을 통해 문법 항목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3권과 4권에서는 여성 결혼 이민자들이 이미 일정한 수준의 문법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여 문법 항목 자체의 의미보다는 그 ‘사용’을 강조하고자 화행 기능에 대한 비중을 높였다. 이를 위해 한 단원에서 두세 개의 화행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중요한 화행 기능은 3급~4급에 걸쳐 심화 학습이 가능하도록 나선형으로 배열하였다. 5권과 6권은 여성 결혼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에서 필수과정이 아닌 심화과정으로 설정되어 있는 데다가 여성 결혼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에서도 목표만이 설정되어 있고, 교수요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5권과 6권의 교수요목은 교재 개발 시에 개발이 되었는데, 5권과 6권에서는 한국어의 구어와 문어를 구분하여 교육하고자 하였다. 같은

난이도의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각각에 자주 사용되는 표현을 나누고 문어 표현은 읽거나 쓰기 활동을 통해, 구어 표현은 듣거나 말하기를 통해 학습하도록 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는 교원용 지침서도 함께 개발되었다. 이는 여성 결혼 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데에서 이루어진 작업이다. 『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의 교원용 지침서는 현재 1권부터 4권까지가 개발되었으며 5권과 6권은 2012년 말에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지침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이 지침서에는 과마다 해당 과에서 다룬 어휘와 문법 중심의 활동지가 제시되어 있다.

여성 결혼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재로 개발된 특별한 유형의 한국어 교재가 있는데 부부 공동 학습 교재인 『알콩달콩 한국어』이다. 이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한국어를 배우기 어려운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 비전문가도 쉽게 가르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앞에서도 간단히 소개한 바와 같이 여성 결혼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는 배치 평가지가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고, 사전·사후 한국어 능력을 진단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 2) 다문화 가정 대상 한국어 교사 교육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다문화 가정 대상 한국어 방문 교육 지도사는 현재 다문화 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을 위한 가장 중요한 한국어 교사 집단이다. 따라서 한국어 방문 교육 지도사를 위한 교사 교육 시스템에 관해 간략히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어 방문 교육 지도사는 현재 다음의 자격 조건을 요구한다. 한국어교원 3급 이상 자격 소지자 또는 국어기본법에 의한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 120시간 이상 이수한 자로서 정부기관 및 시민단체 등에서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120시간 이상 교육한 경력자를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자격 조건에도 불구하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 여성 결혼 이민자 대상 한국어 방문 교육 지도사들은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고,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마친 사람들이 대다수를 이룬다. 따라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는 다문화 가정 대상 한국어 방문 교육 지도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이들을 대상으로 양성 교육과 보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미 한국어 교원 양성 기관에서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120시간의 강의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경험이 부족하고 현장 적용력이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이들에게 36시간의 온라인 교육과 20시간 합숙 형태의 양성 교육을 요구한다. 이뿐만이 아니라 한국어 방문교육지도사로 활동하는 중에 연차별로 차등하여 12~16시간의 보수 교육을 수강하도록 한다. 그동안 현장에서 겪은 경험을 나누고 애로 사항에 관해 서로 토론을 하며 한국어 방문 교육 지도사로서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무로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다문화 가정 대상 한국어 방문 교육 지도사를 위한 온라인 교육 시스템(www.danuriedu.kr)까지 구축함으로써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양성 및 보수 교육 체계를 갖추었다. 『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교재를 활용한 발음 교수법, 어휘 교수법, 문법 교수법을 포함하여 동화를 활용한 한국어 교수법이나 관용어를 활용한 한국어 교수법, 교수 학습 설계, 언어권별 한국어 교수법 등 한국어 교육 현장에 필요한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뿐만 아니라 국립국어원에서는 해마다 100명의 우수 한국어 교육 방문 지도사를 대상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하여 다문화 가정 대상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 또한 다문화 가정 대상 한국어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일 것이다.

### 3) 다문화 가정 대상 한국어 교육 관련 학술 대회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의 효과를 제고하고, 이들에 관한 중요 쟁점 거리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하여 한국어 및 한국 문화(교육) 관련 학회에서는 다문화 가정 대상의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주제를 자주 다룬다.

먼저 이중언어학회(www.korbiling.org)에서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개최된 전국학술대회에서 ‘다문화 시대의 이중 언어 교육(2008)’, ‘다문화 사회에서의 삶과 언어(2009)’, ‘다문화사회의 문식성 문제(2010)’ 등의 주제를 연이어 다루었다. 또한 2011년에 개최된 제26차 전국학술대회에서는 ‘다문화 사회 내에서의 의사소통 문제’라는 주제 하에 다문화 사회와 언어 정책(송향근), 여성 결혼 이민자 한국어의 언어적·비언어적 특성(김선정) 등을 포함하여 8편의 다문화가정 대상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논문이 발표되었다. 또한 2008년 제13차 국제학술대회에서는 ‘세계화 시대의 다중언어·다문화 교육’이라는 주제 하에 다문화 가정 현황과 과제(이상규), 다문화 사회와 한국 언어 문화 교육(김선정) 등을 포함하여 다문화 가정 대상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1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또한 국제한국어교육학회(www.iakle.com)에서는 2008년 제18차 전국학술대회에서 ‘특수목적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 하에 다문화 가정의 한국어 교육 문제를 다루었다. 한국어언어문화교육학회(www.klaces.or.kr) 역시 2010년 제12차 전국학술대회에서 ‘다문화 이론과 한국 언어 문화 교육’이라는 주제 하에 다문화 가정 대상 한국 언어 문화 교육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 밖에도 외솔회나 한국사회언어학회, 한국어언어학회 등 한국어 및 한국 문화(교육)와 관련이 있는 학회에서는 다문화 가정 대상의 한국어 교육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여 왔다.

#### 4) 다문화 가정 대상 한국어 교육 관련 연구

학술 연구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여러 웹사이트를 통해 ‘다문화 사회와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석·박사 학위논문과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검색하여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발표된 다문화 사회와 관련된 논문을 개관한 김선정(2011)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총 92편의 석·박사 학위 논문이 발표되었고, 54편의 학술지 게재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를 주제별로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5〉 주제별 석·박사 학위 논문 및 학술지 게재 논문 수

주 제	석·박사 학위 논문	학술지 게재 논문
한국어 교육의 방향 및 정책	12	15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재	25	17
기능 교육 및 교육 방법	24	4
내용(어휘, 발음, 문법) 교육	10	4
화행 및 발화 분석, 의사소통 문제	4	0
습득 및 중간언어, 오류	3	8
한국 문화 교육	14	6
합 계(편)	92	54

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다문화 가정 대상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논문은 교재나 기능 교육, 교수 방안에 관한 연구 등 실용적인 연구가 많다. 이에 반해, 한국어 습득에 관한 연구나 중간 언어, 심지어는 발음이나 문법 등 내용학에 관한 연구는 드문 편이다. 이러한 경향은 일반 목적 한국어 교육의 연구 동향과는 구별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다문화 사회와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연구는 학문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교육 현장의 요구에 의해, 또는 현장에서의 필요성에 따라 연구가 이루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다문화 가정 대상 한국어 교육의 연구 성과와 관련하여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서울경기 지역에서도 많은 학위 논문이 발표되고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지방에서도 많은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는 점이다. 총 92편의 학위 논문 중 서울경기를 제외한 지역에서 배출된 논문이 52편으로 반이 넘는다. 이는 다른 어느 연구 분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다문화 사회에서의 한국어 교육 현실을 반영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 결혼 이민자의 경우 실제 수적으로는 서울경기 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다고는 하나 거주 한국인 수와 비교하여 볼 때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결혼 이민자의 의미는 서울경기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보다 결코 적지가 않을 것이다. 또한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결혼 이민자의 경우에는 서울경기 등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결혼 이민자들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사회적인 혜택을 받기가 어렵

고, 경제적으로도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 여성 결혼 이민자가 겪는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은 정부뿐만 아니라 그들이 거주하는 지방 자치 단체와 지역 주민 모두의 고민이 아닐 수 없다. 나아가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한국어 교육 관련 연구자들의 관심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관심과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노력이 다문화 사회의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연구를 많이 수행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

2006년과 2007년 등 비교적 초기에 나온 논문들에서는 주로 다문화 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거나 정책을 다룬 논문이 많다. 또한 교육과정이나 교재 개발에 관한 방향성을 제시한 논문들이 대다수를 이룬다. 이는 이미 김선정(2007)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문화 사회와 관련된 한국어 교육의 역사가 짧기 때문일 것이다. 다문화 사회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역사와 연구의 역사가 길어짐에 따라 이와 관련된 연구의 주제도 다양해지고, 아울러 연구의 깊이도 더해질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여성 결혼 이민자나 그들의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육에 관한 연구는 일반 목적 학습자나 학문 목적 학습자에 관한 연구에 비해 뒤늦게 출발하여 아직은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다. 또한 여성 결혼 이민자나 그들 자녀의 한국어 사용 실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현장의 요구와 현실적인 필요성에 의해 교육이 먼저 실시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재가 개발되고 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다. 여성 결혼 이민자나 그들 자녀의 한국어 사용 실태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실제로 이들의 한국어 수준이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어떤 오류를 범하는지,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지,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주변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는지 등에 관한 연구는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수요에 의해 한국어 교육이 먼저 실시되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교사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야 한국어 교육이 학문의 한 영역으로 발돋움을 한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 4. 맺음말

다문화 가정 구성원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교육을 위한 효과적인 운영 체계를 갖추고, 유능한 한국어 교사가 훌륭한 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재미있고 체계적으로 한국어를 지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어 학습자’로서의 다문화 가정 구성원의 특성을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의 한국어 교육 내용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여성 결혼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은 교육 자료 구축 면에서나 교원 양성 체계 면에서나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추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은 이미 개발된 교육 자료들이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훌륭한 교사를 양성하여 교육 현장에 보내고, 이들을 정기적으로 재교육하는 일이 주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특별히 한국에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다문화 가정 대상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는 한국어에 능통하고 한국 문화에 익숙한 같은 국적의 여성 결혼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현장에 투입하는 일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은 한국어를 교육하기도 하지만 먼저 겪은 자신의 경험을 활용하여 신규 입국한 여성 결혼 이민자들에게 훌륭한 멘토링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 아동을 위한 한국어 교육은 늦게 출발이 되어 이제 걸음마를 하는 단계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들을 위한 맞춤형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미 정부 차원에서 교육과정이 설계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교재가 개발되고 있으며, 이들의 한국어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평가 도구가 개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짧은 시일 안에 이루어진 관심과 대책이지만 다른 학습자 집단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 비해 이미 상당한 체계를 갖추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이들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교재(동화를 활용한 한국어 학습 교재, 온라인 한국어 학습 교재, 게임을 활용한 한국어 학습 교재, 엄마와 함께하는 한국어 학습 교재 등)가 개발되어야 하고, 일선 학교에는 한국어 전담 강사 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한국어가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경쟁력 있는 21세기 인재로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

관한 한국 정부와 사회, 한국어 교육을 포함한 교육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 ❖ 참고 문헌

- 김선정, 「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육」, 『이중언어학』, 33, 423-446, 2007.  
김선정, 「다문화 가정 자녀 실태 및 다문화교육의 추진 방향」, 『외국어교육연구』, 24-1, 21-46, 2010.  
김선정, 「다문화 사회와 한국어 교육」, 『이중언어학』, 47, 659-686, 2011.  
김중섭, 김정숙, 이해영, 김선정, 이정희, 『국제 통영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보고서』, 국립국어원, 2010.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1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결과보고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2.  
행정안전부, 『201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조사』, 2012.  
허용, 강현화, 김선정, 이미혜, 최은규,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연구 보고서』, 국립국어원, 2009.

### － 한국어 교재

- 국립국어원, 『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1~6』, 2010.  
국립국어원, 『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교원용 지침서 1~6』, 2010~1012.  
농림부, 『우리 엄마의 한국어(My Mom's Korean Language)』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판), 2007.  
법무부, 국립국어원, 경희대학교,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위한 한국어 기초』, 2010.  
법무부, 국립국어원, 경희대학교(2010)『사회통합프로그램을 위한 한국어』 초급(1, 2).  
법무부, 국립국어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위한 한국어』 중급(1, 2), 2010.  
여성가족부,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재』(초급), 2005.  
여성가족부, 국립국어원,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첫걸음』, 2007.

여성가족부, 국립국어원,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중급), 2007.  
충청북도 교육청, 『결혼 여성 결혼 이민자와 외국인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재』 『관심·사랑·화합으로 하나가 된 우리』(초급, 중급, 고급), 2006.

– 검색 웹사이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http://www.iakle.com>

법무부: <http://www.moj.go.kr>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이중언어학회: <http://www.korbiling.org>

한국건강가정진흥원: <http://www.kihf.or.kr>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http://www.klaces.or.kr>

행정안전부: <http://www.mopas.go.kr>

❖ ABSTRACT

## The Present State and Outcome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Multicultural Family Members

Kim, Seon-Jung

The aim of this paper is to briefly consider the present state regarding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multicultural family members, and to consider the outcomes produced so far. Married woman immigrants and their children must be one of the most significant groups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terms of their huge number and their roles and meanings in Korean society.

In order to uplift the Korean communicative ability for multicultural family members, an effective operating system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is needed, and also live and efficient Korean language instruction must be given by capable Korean language teachers with adequate teaching materials. A customized Korean language education must also be offered based on researches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multicultural family members as “Korean language learners”.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married woman immigrants has almost been set up in some extent, in terms of teaching materials and the teacher training system. Therefore, an efficient operating system must be constructed so that the developed teaching materials can be actively utilized in the site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 periodical retraining of Korean language teachers for multicultural family members is also necessary for the improvement of Korean language teaching efficiency. However,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multicultural children is still in its infancy due to its late start-up. By the support of the Korean government, the curriculum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has recently been fixed, KSL text books are being developed, and a diagnostic tool for evaluating their Korean language ability is now in progress. Many continuing concerns and support must still be provided for the improvement of their Korean language ability and fostering them as competitive and capable of speaking

Korean.

---

**Key Words**

다문화 가정, 여성 결혼 이민자, 다문화 가정 자녀, 한국어 교육 현황, 한국어 교육 성과

multicultural family, Married woman immigrants, multicultural children, present state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outcome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논문접수일: 2012. 11. 08.

심사완료일: 2012. 12. 07.

게재확정일: 2012. 12. 21.